

미국 꿀벌 감소원인 밝혀져

I. 개요

- 미 농무부와 환경보호청(EPA)은 5.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이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꿀벌의 감소원인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
-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로 인해 아몬드, 사과, 블루베리 등 과수농가에 큰 피해

II. 원인

- 기생 진드기,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, 박테리아, 영양부족, 유전인자, 서식지 감소, 농약 등의 원인이 뒤얹혀 있어 군집붕괴(CCD)현상의 원인을 찾는데 애로를 겪어왔음
- 여러 원인 중 중요한 것은 진드기(Varroa destructor)로 밝혀졌는데 양봉업자들이 벌통에 사용하는 진드기 구충제에 내성이 생기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이 군집붕괴와 연관이 있다고 밝힘
- 이밖에 박테리아의 일종인 European foulbrood가 미국 꿀벌에서 발견됨

III. 시사점

- 대책으로 꿀벌의 유전적 개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이 필요.
 - 개량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양봉업자의 생산성 향상 가능
 - 미국의 양봉업자들은 1년 내내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꿀벌의 환경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
- 또한 꿀벌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좋은 목초지와 식물종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수립 요구
-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의 3분의 1 가량이 화분받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분받이는 대부분 꿀벌에 의존함
 - 미국의 경우 화분받이에 의한 작물 생산액은 200-300억 달러에 달하며, 주요 작물은 사과, 너트류, 아보카도, 아스파라거스, 브로콜리, 감귤류, 크렌베리 등 90여개 개화작물임